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19

JCCT 2022-9-26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llege Life Adaptation obstacle of Adult Undergraduate

최정숙*, 김진숙**

Jung-Suk Choi*, Jin-Sook Kim**

요약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서 경험하는 장애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성인대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8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여, 개인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 등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의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환경은 다양한 연령과 경험,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애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도출된 장애요인을 기반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측정도구 개발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성인대학생, 대학생활, 적응, 장애, 현상학적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obstacles adult undergraduate experience in adapting to college lif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2 adult undergraduate attending colleges in Daegu and Gyeongbuk. For the study, Colaizz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ight factors such as relation obstacle, bachelor's and curriculum operation obstacle, social recognition obstacle, study ability obstacle, college environment obstacle, economic obstacle, personal disposition obstacle, and temporal obstacle were found. Through the above research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college environment, which is operated mainly by general college students, is expressed as various types of obstacle for adult undergraduate who work and study at various ages and experiences. Based on the derived obstacle factors, it is expected that a follow-up study will be conducted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that can empirically explore the obstacle of adult undergraduate to adapt to college life.

Key words : Adult Undergraduate, College Life, Adaptation, Obstacle, Phenomenology

1. 서론

전통적으로 학령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대학에

‘성인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만 25세 이상 ‘성인대학생’의 수는 전체 대학생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하지만, 최근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에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평생교육학박사 외래교수 (제1저자)

**정희원,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최정숙의 박사학위취득논문 데이터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구성함.)

Received: July 30, 2022 / Revised: August 25, 2022

Accepted: September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skim@dhu.ac.kr

Dept of Lifelong Education Convergence, Daegu Haany university

따르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은 1982년 62,950명(7.2%)에서 2020년에는 244,982명(9.5%)으로 증가하였다[1, 2].

성인대학생의 증가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계화와 초연결사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3].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성인대학생의 충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4, 5].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 대학보다 미충원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지방대학에서 성인대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은 그간의 경직되고 분절적인 학사운영을 탈피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였다. 교육부는 대학구조를 학령기 학습자에서 성인학습자에게 적합한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대학이 평생학습사회 인력을 배출하고 사회혁신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아젠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6].

교육부는 2008년부터 성인에게 적합한 고등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2017년에는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학들은 LiFE 사업에 참여하여 성인학습자 전담형 학위과정 운영과 다양한 학사 유연화 제도 운용 등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학습자 맞춤형 고등교육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한 성인학습자는 2017년 15개교 52개 학과 1,990명에서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30개교 113개 학과 3,912명으로 증가하였다[7].

그러나 성인대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환경적 변화는 여전히 미약하다. 성인대학생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긴 학업 공백을 가진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생존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남겨져 있다. 또한 성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다른 발달단계와 특징, 가치체계,

학습 특성, 생활 배경 등의 요인들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대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성인대학생의 대표적 고등교육기관인 방송대학의 중도탈락률은 23%에 이른다[8]. 그런데도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요인 연구와 이로 인한 성인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교육통계연보에서도 성인대학생의 현황은 연령별 입학생과 재학생 현황'만을 통계에서 다루고 있고, LiFE 사업에서도 참여대학의 성인대학생 충원율에 대한 현황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성인대학생 모집 확대 등에 의해 높은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성인대학생의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대학의 학사정책의 재구조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탐색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는 어떠한가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평생교육정책 변천과정

전통적인 대학 학령기(만 18~24세)를 벗어난 성인에게 고등교육의 학위취득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2년도에 서울대학교 부설기관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개설되었다. 이후 1990년도 독학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령기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고등교육 기회가 보장되었다[9]. 1995년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설립, 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제 등이 도입되면서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가 크게 확대되며 고등평생학습 제도화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학의 성인학습자 친화형 체제 개편이 정책적 화두로 제시된 것은 2008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중심대학 지원사업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0]. 정부는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대학체제개편과 프로그램 중심형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 정책의 추진은 고등교육체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대학과 평생학습 간의 상생을 가능하게 구조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11]. 2011년부터는 평생학습 선도대학과 평생학습 중심

대학을 발굴 및 지원하여 대학의 전체적인 체제 개편을 유도하였다. 이후 2012년에 정부는 선취업 후진학형과 4050세대 제도약형 트랙으로 전환하여 지원하였다[12].

2015년 교육부는 성인을 전담하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정책을 발표하며 대학 전체의 성인 친화적 체제개편을 유도함으로써 대학 평생교육 정책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대학 조직 체제 개편과 동시에 성인학습자의 일·학습 병행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여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13]. 2016년에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방안 확정 및 후진학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대학이 가진 평생교육 기회를 단순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재직자의 후진학 계속교육의 장으로서 대학 운영체제 전반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된 것이다[14].

이후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령기 학생 중심의 고등교육 체제를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제로 전환하여 성인학습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2017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사업으로 통합 및 개편하였다.

2020년 LiFE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총 30개교, 113개 학과, 3,912명 정원으로, 단과대학형, 학부형, 학과형, 컨소시엄형 4개의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모집정원수(1,990명) 대비 충원율 55%에서 2020년에는 모집정원수(3,912명)의 85%를 충원하며 LiFE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2. 성인대학생의 정의 및 특성

성인대학생에 대한 정의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일정 공백기를 거친 후 대학에 입학하였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에 입학한 만 25세 이상의 학습자를 성인대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 따라 성인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의할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일반대학생도 성인학습자라고 볼 수 있다[15]. 또한, 만 25세 이상의 대학생을 성인대학생이라고 정의한다면 일반대학생도 성인대학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을 OECD와 함께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직장 및 사회생활, 결혼생활을 하다가 학령기를 놓친 후 대학에 신·편입학하거나 중도 탈락 후 재입학하는 만 25세 이상의 성인’과 함께 ‘과거

대학 졸업 후 재취업 또는 배움의 즐거움 등을 위해 다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입학하는 성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성인대학생은 연령, 입학동기, 대학생활적응 측면에서 일반대학생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먼저 성인대학생은 연령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6, 16]. 한승희는 고등교육에서 성인학습자를 1, 2, 3기로 분류하며, 성인 2기(25~64세) 학습자는 직업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성인 3기(65세 이상)의 학습자는 은퇴 이후의 인생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학습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1]. 백근영[16]은 성인대학생의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습자의 안정감과 정서 조절 능력이 달라져 학습 지연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안현용[6]의 연구에서도 대학 평생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성별, 연령, 학력 수준, 학습 시간 등을 언급하며 연령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입학 동기의 측면에서도 성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학위취득, 직업 경력의 개선, 인지적 흥미, 자아실현과 같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고등교육에 진입한다. OECD[17]에서는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성인의 입학동기를 개인적 개발자(personal developer)로 학위취득을 위해 고등교육에 입학하거나 재입학하는 성인, 재충전형 학습자(recycler)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승진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또는 추가적인 자격 취득을 위해 재입학한 성인, 단기학습자로 고등교육에서의 선행경험 없이 단기간의 교육과정에 전문적 목표를 가지고 등록한 성인, 이차적 기회자(second chancer)로 고등교육의 선행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자아실현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등록한 성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학은 성인대학생에게 이전의 경험과 비교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 성인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통해 모르는 것에 대해 막연함을 채우고 지적 유희를 체험한다[6]. 더불어 사회에서의 학력으로 인한 소외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소유한 성인대학생은 대학에 진학할 때 이미 목적의식과 학업에 대한 기대로 충만한데 비하여 여전히 현재의 대학 운영체제는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대학생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및 유지에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적응과 장애

‘적응(adaptation)’이라는 개념은 대개 주변 환경과 개인이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하거나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18]. 성인대학생은 긴 학업의 공백기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학생 활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인대학생은 대학생들이 익숙지 않음에 더해 자신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불확실해 하며 적응국면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대학생 활적응은 성인대학생이 대학이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학의 내적, 외적 여러 요구와 도전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해가는 것을 의미한다[19].

교육에서의 ‘장애’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평균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내적인 요인(중추신경의 손상이나 미세뇌기능 장애)에 의해 학습의 기초 영역(읽기, 쓰기, 계산 등)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지칭한다[5]. 대학생 활적응장애 또는 학습활동장애란 용어는 1962년 Samuel Kirk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까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용어로 ‘학습활동저해’ 또는 ‘학습참여의 어려움’ ‘학습장벽’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대학생 활적응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장애’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는 ‘disabilities(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아니라 ‘obstacle(어려움, 방해)’의 의미로 정의하고자 한다[5].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성인대학생이 대학생 활을 통해 대학생 활적응에 어떠한 장애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질적연구란 인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경험을 바로 그 경험에게 만드는 본질적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분명하게 기술하므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 특히, Colaizzi는 실험과 같은 조작적인 방법으로는 바뀌지 않는 생활에서 경험되는 일상적인 체험의 근원적 정체를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기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21]. 형식적인 명제를 확보하고 그에

따른 근거를 통한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4단계를 통해 분석하는데 첫째, 전체 자료 검토, 둘째, 유의미한 진술 추출, 셋째, 유의미한 진술에 근거한 의미 발견, 넷째, 주제별 정리이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본 연구가 목적하는 성인대학생 대학생 활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이고 생생함을 살필 수 있으며, 성인대학생이 경험하는 본질 그대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주제별 정리를 통해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 속성인 ‘장애’를 도출해 내는 데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연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성인 별도 반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32인이다. 의도적 표집 방법은 연구자가 원하는 정보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이해하고 통찰을 줄 수 있는 표본을 연구 의도에 맞추어 선택하는 방법이다[22].

연구참여자는 성인대학생 1학년 10인과 2학년 7인, 3학년 8인 4학년 7인이다. 이들의 성별은 남학생 12명, 여학생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 1명, 30대 4명, 40대 10명, 50대 14명, 60대 3명으로, 40대~50대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32명 중 3명을 제외한 29명이 현재 직장에 다니며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은 면담 전 연구에 관련된 설명 및 동의를 득한 후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내용을 근거로 반구조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추가 면담은 COVID-19의 상황으로 대면 면담이 어려운 참여자와는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은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 적용성, 신뢰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면담내용은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파일은 전사하여 문서로 만든 후 연구참여자로 부터 확인을 받았다. 적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정숙과 김진숙[22]의 분석절차에 따라 텍스트 분류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문장을

도출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인대학생에 대한 이해가 깊은 평생교육 관련 학과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5인의 점검과정을 거쳤다.

IV. 연구 결과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탐색 후 도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개인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계장애’, ‘사회적 인식장애’, ‘시간적 장애’, ‘경제적 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 등 8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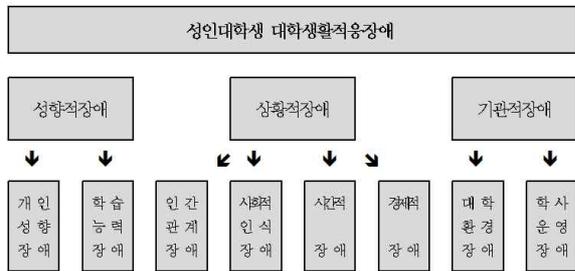


그림 1.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 도출
 Figure 1. Drawn as adult undergraduate collage life adaptation obstacle results

1. 성향적장애

1) 개인성향장애

개인성향은 개인의 특정한 태도나 인식, 기대 등으로 자신에 대한 태도와 자아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의 텍스트 분류과정을 통해 개인적 심리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육체적 현상에 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입학하기 전에는 뭐든 다 잘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중략...) 갑자기 어딘가에 툭 떨어뜨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공부도 낯설고 어려운데 동기들과도 아직 친해지지 않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다른 동기들은 다 친한데 나만 동떨어진 이방인 같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대학에 왔나 후회도 됩니다. (연구참여자 3)

낯선 곳에서 누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어렵죠. 갑자기 공부라는 걸 하려고 하니 막막하기만 했어요. 교수님도 친절하시고 조교 선생님, 선배님들도 조언해주시고 하지만 어차피 내가 몸으로 직접 부딪쳐 경험해서 익숙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원래 소심한데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굳이 이걸 해서 뭐하나 싶고. 마음에 갈등이 맨날 있어요. (연구참여자 8)

성인대학생은 기존과 다른 이질적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융합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대학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195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내분비학자 Hans Selye는 “우리를 죽이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낯선 환경인 대학에 입학한 연구참여자 중 내성적이고 타인에게 부탁을 잘하지 못하는 참여자는 그렇지 않은 참여자보다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2) 학습능력장애

학습을 연속적으로 이어온 일반대학생과 달리 많은 성인대학생은 대학 학업 그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으로 작용한다. 대부분 20~30년 전 비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대학에서의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처럼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대학 온 게 아니라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온 거잖아요. 배우려는 욕심이나 열정은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난감하죠. 에세이를 써내라고도 하고 리포트를 양식에 맞춰서 내라고도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구참여자 9)

이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해는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부분 읽고 말해보라고 하는데 참나 책 덮으니 머릿속이 하얘, 모르겠어. 이래서 4년 동안 학교는 다닐 수 있겠나. 잘리지는 (웃음) 않으려나 오만 걱정이 들죠. 저는 자격증 따로 왔는데. 이래서 자격증은 따졌나 싶기도 하고.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처럼 연속적인 학습을 통한 입학이 아니라 사회생활 등 긴 학업 중단 기간을 거친 후의 대학 생활로 인해 글을 쓰거나 양식에 맞춰 과제를 작성하는 그 자체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노화로 인한 학습의 이해도와 기억력, 배움의 속도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습능력의 한계가 그들에게 대학생활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성인이 대학에 대한 선망과 의욕과는

달리 오랜 기간 학교와는 동떨어진 생활로 인한 학업능력의 부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상황적장애

1) 인간관계장애

연구참여자들은 늦은 나이지만 현재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또는 과거 대학에 가지 못한 아쉬움에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가진 성인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딸이 반대했어요. 놀랐죠. 딸들이 응원해 줄 줄 알았는데 창피하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아빠가 대학 안 나온 거 광고할 일 있냐고. (...중략...) 아내도 명쾌하게 찬성해주지 않았어요. (대학) 그거 지금 나와서 뭐 하나요 하면서 좀 꺼려했어요. (연구참여자 21)

제가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서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그 모임을 안 가니 친구들이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 나이에 뭐하러 학교에 다니느냐고 해요. 다니더라도 대중 결석도 하면서 하라고 하죠. 너무 열심히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장난 같은 막말도 하곤 해요. 섭섭하기도 했죠. (연구참여자 16)

제가 다니는 회사의 옆 동료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상사에게는 말을 안 했어요. 어차피 주말에 학교 다니는 거라서요.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괜한 선입견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일에 소홀할 거라는 선입견을 가질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대학에 진학하면 가족과 지인들이 기뻐해 주고 찬성해 줄 거라 믿었는데 예기치 못한 가족의 반대와 지인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주말이나 야간 수업 참여로 학업을 병행함으로 일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직장에 대학 재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 동료의 시기와 업무 배제의 두려움 또는 일을 등한시 할 것이라는 편견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상처를 받고 대학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해 고민을 한다.

2) 사회적인식장애

성인대학생을 바라보는 주변 인식으로 인해 겪게 되는 성인대학생의 어려움으로, 2016년 ‘某’ 여대의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 배움의 과정이 일반대학생과 같은 과정이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대학’이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대학생의 대학 생활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음을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학교를 일반 학생들처럼 매일 가는 게 아니니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의심이라고 해야 하나? 주변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힘들다거나 과제가 너무 많다고 하면서 조금 업살을 부리면, 돈만 내면 졸업장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요. (...중략...) 지금 제가 학생이다 보니 그런 말에 상처받네요. 학교 안에서 젊은 학생들도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연구참여자 1)

제 느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략...) 직원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저희를 학생처럼 대하질 않는 것 같아요. (...중략...) 어느 교수님을 복도에서 만났는데, ‘아줌마 학생이예요? 왜 들어왔어요?’ 하면서 통명스럽게 물어보고는 획가시더라고요. 우리 학과의 소속 교직원들은 잘 대해주시는데 그 외의 교직원들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연구참여자 29)

대학 내에서 성인대학생을 특이하게 보는 교직원과 같은 대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20대 대학생은 성인대학생이 대학생으로 적응하는데 방해꾼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인대학생이 20대의 일반대학생과 같은 대학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대학 내 소수자 또는 이방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교육학자 Knowles가 언급한 것처럼, 성인대학생은 대학에서 일반대학생과 비교해 ‘무시된 인종(neglected species)’[23]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시간적장애

대학의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학과 공부와 수업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학업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가능해진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으로 가정과 직장, 학교 등 그들이 처해있는 다양한 수준과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무 바빠요.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 대학에 오긴 했는데, 막상 학교를 다니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날 학교에 오려니, 힘들죠. 배운 걸 복습할 시간은 전혀 없고 과제도 주중에 잠 줄여가면서 해요. 그래서 인지 매일 매일이 피곤하네요. (연구참여자 2)

성인대학생은 일반대학생과 달리 일과 가정과 함께 학업을 하는 즉,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기에 가족과 직장 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학업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과제나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결국 성 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가 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시간 부족은 성인학습자의 연구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장애요인으로 Johnstone과 Rivera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39%가 시간 부족을 장애라고 하였다. 1960년대 그때도 2021년 현재도 시간 부족은 성인들의 배움에 있어 변함없는 장애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경제적장애

정부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 학생의 장점은 장학금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근거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과거와는 다른 대학환경이다. 이러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는 성인대학 생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금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의 장애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옛날처럼 등록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국가장학금도 있고 만학도 장학금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래 저래 드는 돈이 많으니까, 요즘처럼 경기 좋지 않을 때는 부담 이죠. 젊은 학생들처럼 대학 나온다고 제가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평생 저한테 큰돈 써 본 적이 없으니 등록금 낼 때는 남편이나 식구들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성적에 예민해지고 시험 때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장학금이 많으면) 성적 신경을 안 쓰고 공부하고 싶는데, 마음이 복잡하네요. (연구참여자 22)

제 형편이 돈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등록금 낼)

능력은 돼요. 형편이 어려우면 대학에 입학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중략...) 그런데 국가장학금 같은 게 소득분위별로 주 니 다른 친구들은 공짜로 또는 등록금을 조금 내고 다니는데 저는 다 내야 하는 게 조금 억울해요. 성인들은 비교하지 말고 재교육이나 재취업의 목적으로 평등하게 장학금을 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참여자 19)

연구참여자들은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대학진학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입학 후 동료와의 장학금 비 교를 통해 상대적 불평등의 감정을 겪으며 박탈감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인대학생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일반대학생과는 달리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접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의 혜택 차이에 따라 대학진학에 대한 목적과 동기가 간절한 연구참여자들과 그렇지 않은 연구참여자 간의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장애는 학습에 참여하기 전의 학습자와 학업에 이미 참여 중인 학습자에게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시대가 변해도 경제적 부분이 학습자에게 장애요인으로 나타나지만, 그 이유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에 대한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데, 누구나 원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같은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에 실제적인 지원 마련을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3. 기관적장애

1) 대학환경장애

일반대학생 중심의 대학 학사운영과 행정, 시설사용 또한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정기적인 수업 참여는 직장생활 등 다양한 사회 생활을 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성인대학생 대상 학과(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대학 전체의 행정적인 시스템이 여전히 일반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대학생은 주중 야간이나 주말 등교로 인해 대학생활과 관련된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시설의 이용에도 제한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우리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우리 학과밖에 몰라요. 다들 그런가? 문자로 교수학습지원센터나 학생상담센터,

비교과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행사 같은 문자가 와도 뭔지를 모르니까 해야 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학과와 우리 동기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대학을 다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대학생에 대한 정체성이 좀 없죠. (연구참여자 2)

성인대학생을 위한 별도반을 구성하여 학사일정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수업 일정이 일반학생들과 달라 연구참여자들의 활동 범위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야간이나 주말 수업과 여유 없는 수업 일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사례처럼 대학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거나 주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대학시설 부분에서도 야간이나 주말에는 사용 인원이 한정적이어서 최소로 운영되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 학사운영장애

성인대학생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대학을 선택하고 입학에 결정한다. 그러나 많은 성인대학생은 처음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에서 학업을 지속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특히, 학업의 연장선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일반학령기 학생들과 달리 오랜 학업 공백기를 거쳐 입학한 성인대학생들은 교수와의 유대감이 대학에서의 애착 형성에 크게 작용을 한다.

입학 전 상담해주신 교수님의 친절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입학하면 자주 만나 대화를 해야지, 했는데 교수님들과 대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수업이 너무 타이트하게 바쁘고 주중은 제가 학교 오기가 힘들어요. 전화라도 하라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교수님이 대학에서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데 (웃음) (연구참여자 9)

학업에 절대적 가치를 둘 수 없는 성인대학생에게는 여러 갈등이 있을 때 교수자와의 대화를 통한 안심과 설득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업 일정상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운 현실에 아쉬워한다. 연구참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교수는 성인대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여유롭지 못한 학사일정과 교수자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성인대학생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이 경험한 대학생활적응장애의 분석된 내용은 8개의 주제로 도출되었다. 결과를 통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생활적응장애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하게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성인대학생을 포함한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 전 상황에서의 고민과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구분하지 않고 연구되었다. 즉, 대상과 시기의 구분이 모호하여 증가하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이라는 명확한 대상과 ‘대학 입학 후’라는 명확한 시기를 제시하였다. 성인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여 양적,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장애를 파악하고 장애 정도를 확인하여 이를 성인대학생의 지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하였다.

둘째,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는 개인, 상황, 기관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구성요인을 개인 성향장애, 학습능력장애, 인간관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대학환경장애, 학사운영장애로 구분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을 포함하는 성인학습자의 학습참여장애에 관해 성인의 학습참여 전후 단계에서의 장애를 중심으로 개인의 심리와 조건에 맞추어져 제시하였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장애는 3~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 이는 간편하고 편의성이 뛰어나 집단의 경향성을 판단하기에는 쉬우나, 성인대학생 개인이 어떤 점에서 대학생활적응장애를 겪고 있으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 대학생활적응장애 구성요인을 8개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현되는 다각적 요인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장애 수준을 보다 상세하게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상황과 관련된 영역이 비중 있게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장애, 사회적인식장애, 시간적장애, 경제적장애 등 성인대학생의 상황과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한다. 즉, 성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삶의 상황에서 여러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장애를 파악하기에는 남녀의 비율과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합리적이고 정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3~5개의 요인으로 단순화한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발견되는 다각적 요인으로 상세하게 탐색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대학생에 발생하는 다차원, 다각적인 장애를 실증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개발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1982.
- [2] 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20.
- [3] J. E. Chae, S. H. Han,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JLLS)*, Vol. 11, No. 4, pp. 1-24, 2015.
- [4] M. J. Shin, C. H. Jung, "A Study on Effect of Learner Characteristics for Adult Learners in Distance college on Learning Outcome: Centered on Mediating Effect of Motivation and Impeding Factors in Learning Particip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6, No. 3, pp. 177-204, 2020.
- [5] O. S. Ha, "A Study on Learning Obstacle Factors of Lifelong Education College Adult Learners and Perception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chool Dropout Intention - Focusing on the Cases of D Lifelong education Colleg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19, No. 17, pp. 39-56, 2019.
- [6] H. Y. Ahn, "A Study on the Effect of Adult Learner Characteristics 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long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Universities Operating Adult Learner Specified Degree Programs,"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7, No. 1, pp. 141-174, 2021.
- [7] Ministry of Education, "A Basic Plan for the college's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in 2021". 2021.
- [8]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Ministry of Education, 2021.
- [9] J. E. Chae, "A Study on the Support System for Older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 US," *Korea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KCES)*, Vol. 18, No. 3, pp. 155-177, 2008.
- [10] J. E. Chae, "Lifelong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11, No. 4, pp. 1-24, 2015.
- [11] S. H. Han, A Study on Lifelong Learning Society. Seoul: Kyoyookbook, 2010.
- [12] Ministry of Education, The center of the college of the basic plan for the Plan of lifelong learning(draft), 2012.
- [13] Ministry of Education, Basic plan for lifelong education group and college support project draft). 2016.
- [14] H. K. Yang, "Historical Transition of college Lifelong Education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and HRD*, Vol. 15, No. 2, pp. 281-302, 2019.
- [15] J. H. Kim,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f College on Adult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Chung-Ang college, 2016.
- [16] K. Y. Baek,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for Uncertain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Behavior among Lifelong Education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Role of Avoidance-istractive Emotion Regulation and Multi-group Analysis by Age Group,"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21, No. 2, pp. 147-169, 2020.
- [17] OECD, Adults in higher education. Paris, France: OECE, 1987.
- [18] K. H. Kim, S. B. Kang,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Life Adjustment Scale for college Freshme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0, No. 3, pp. 253-293, 2016.
- [19] J. Y.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college Life Adaptation Scale for Non-traditional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5, No. 3, pp. 111-135, 2009.
- [20] H. Choi, H. J. Kim, "Overcoming Stress: A Phenomenological Study of Field Missionaries Rescuing North Korean Defectors 1,"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8, No. 3, pp. 73-83, 2020.
- [21] H. J. Yang, "An Exploratory Study on Catharsis in the Psychodrama," *The Journal of the*

-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2, pp. 41-47, 2020.
- [22]C. J. Choi, J. S. Kim, "Motivation and meaning of employee's advancing to graduate school study,"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Vol. 6, No. 2, pp. 315-351, 2020.
- [23]M. S. Knowle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NJ: Cambridge Adult Education, 1990.
- [24]M. Jung,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in pre employment backward studies and the method of supporting learning," Institute of Distance Education, Policy task, 14-05, 2015.
- [25]Darkenwald, G. G., & Merriam, S. B. "Adult education: foundations of practice," New York: Harper Collins, 1982.
- [26]G. G., Darkenwald & T. Valentine, "Factor structure of deterrents to public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35(4), 177-193, 1985.
- [27]K. P. Cross,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81.